



2021년 4월 25일(제1032호) 부활 제4주일(상소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제2의 그리스도”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명 또는 소명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여러 소명 가운데에 사제, 수도자, 선교사의 성소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신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제 직무의 사명에 대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제는 착한 목자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샅꾼이 아닌 목자이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은 양들과 가까이 지내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목자라고 여기는 사제들도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역할을 부여해주셨지만, 저는 늘 그분의 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아이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사제는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를 돕는 ‘양치기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비하하는 것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사제의 역할은 목자인 예수님을 도와 양을 치는 목양견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자리와 사제의 자리를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시듯, 목자의 자리는 사제가 아닌 예수님인 것이죠. 사제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제는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제2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복자 앙투안 슈브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다. 우리는 삶 전체 안에서 모범이시며 예수 그

리스도의 삶을 재현해야 한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사제를 높여주는 것은 신자들의 인정도 인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제에게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반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 사제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한 사제의 모습은 많습디만 지면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대로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삶의 모습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사제들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병국(요희보스코) 신부
인천해군(인방사)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捰 송 제 2 독 시 복음 捰호송

사도 4,8-1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요한 3,1-2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0,11-18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일곱 번째 시한

저의 형제 토마스(최양업)의 부모도 살해되었는데, 부친(최경환)은 곤장으로, 모친(이성례)은 칼을 받아 두 분 다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하여 부친(김제준)은 참수되었고, 모친(고 우르술라)은 의탁할 곳이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란치스코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매우 많으나 여기에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장황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앵베르 주교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배반자와 포졸들의 수색을 받으시어 수원이라는 곳에 은신하셨는데, 유다스가 지옥의 심부름꾼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당도하자, 주교님은 쉽사리 더 피신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포졸들 앞에 나아가 재판소로 끌려가셨다 합니다.

신부님 두 분도 자수하지 않으면 천주교인이라는 이름까지 전멸될 것이라는 말을 주교님이 들으시고, 편지를 보내 두 분의 신부님들을 서울로 불러 올려 다 같이 한 날에 순교의 화관을 받으셨다 합니다. 오! 이분들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얻은 후, 황제의 붉은 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천상 성소로 개선 용사로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얼마나 불행한 땅입니까! 그렇게나 여러 해 동안 목자들을 여의고 외로이 지내다가 갖은 노력을 들여 가며 가까스로 맞이한 신부님들을 일시에 모두 잃었으니, 조선은 얼마나 불운합니까! 적어도 한 분만이라도 남겨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두 다 삼켜 버렸으니 조선은 참으로 안타깝고 괴씸합니다. 요새는 박해가 멎어서 신자들은 조금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신부님들이 계시지 않아 마치 목자 없는 양 떼처럼 탄식하며 방황하고 있답니다.

근년에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주요한 배반자가 된 김여상은 사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사형 이유는 흉악한 인간으로서 남들을 공적으로 해쳤기 때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이따위 인물은 사형을 받고 매도당하게 마련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예, 여기 있습니다.

"배영길 베드로."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 대전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는 소리에,
그렇게 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성전에
가득 차
울렸습니다.



상화이야기 잠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과 사도 요한 세자와 두 천사



밀라노에서 활동한 루이니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추종자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남겨진 작품으로 볼 때 화가로서 인정받은 삶을 산 듯하다.

오늘 소개할 그림만 보아도, 잠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과 이들을 보위하는 두 천사, 그리고 뒷배경(어둠 속)의 사도 요한이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로 그려져 있다.

베르나르디노 루이니
제작 시기 미정
캔버스 위 유화, 92x73cm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파리

미소를 짓고 있는 천사들과 달리 성모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는 잠들어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가올 수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왼편의 천사가 깔아 놓고 있는 흰 천은 예수님의 수의를 상징하고, 성모님은 곧 이 위에 예수님을 눕히실 것처럼 보인다.

평화롭게 잠든 아기 예수님의 표정과 성모님의 우아한 손가락, 그리고 수난을 상징하는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가슴을 잔잔히 파고든다.



김은혜(갤러리샷)

교 구 소 식

군중우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능용 문병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4월 27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학군교 훈련 신부 위문
 때: 4월 28일(수) 11:00
- 특교단 정천진 신부 격려 방문
 때: 4월 28일(수) 16:00

◆ **군중교구 업무대 상당 사무장 모집**

- 자격 : 컴퓨터 사용 가능,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5월 12일(수)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능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